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간 31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23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음력 9월 19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2공항 의견수렴 '여론조사' 가닥

도, 도의회 갈등특위에 여론조사 진행 의견 전달
특위 어제 비공개 간담회 갖고 제안 내용 등 논의
성산주민 가중치 적용· 찬반 문항 향후 쟁점 전망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주민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표본구상을 제안하면서 제주도의회와 이견이 발생, 향후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3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특위)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주민수용성에 가중치를 반영한 한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갈등특위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갈등특위는 도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 주민 가중치 적용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갈등특위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특위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복수의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며 "제주도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여론조사시 제안한 성산읍 주민 가중치 부여, 제주 제2공항 찬반 등의 세부 문항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갈등특위는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가) 왜곡돼 버리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 문제와 연관돼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문항에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갈등특위는 조만간 제주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행정체제·구역 개편 공론화 '시동'

도의회, 오늘 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비대해진 행정시 구역을 나누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2011년 3월 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해 4월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발족, 운영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민선6기 들어 2017년 1월 새로이 구성된 행개위는 그 해 6월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분리, 행정시장 정당공천배제 등 3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대두로 약 10년간 도민사회의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사전 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의와 방향',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전 대표, 제주국제대학교 김상명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교통네트워크 선명애 대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송종식 국장이 참여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재산세 세율 인하시 지방세 감소분 보전해야"

시·도지사협 정부에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3일 정부의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의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반려견과 즐기는 제주 가을 3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카페를 찾은 관광객이 반려견과 함께 만개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사이를 거닐며 깊어가는 제주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서귀포시 원도심인 중앙동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에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지역이 선정돼 2021~2024년 사이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해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서귀포시를 포함해 전국 47곳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귀포시는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이란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중앙동 동문동로 27 일원에 마중물사업비 199억원을 투입, 예술·체육·골목기능 활성화를 위한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생활체육센터·적정기술 창작소(공방)·마을쉼터·통합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영종기자

10월 제주지역 소비자 심리 큰 폭 상승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3일 발표한 '10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3으로 전월대비 13.4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 78.5에서 8월 87.5까지 회복했지만 9월 78.9로 떨어졌다가 10월들어 반등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대비 12.2p 상승한 91.6을 나타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현재생활형편지수(84)와 생활형편전망지수(93)는 전월 대비 각각 7p, 14p 상승했다. 앞으로 6개월 후 가계수입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가계수입전망지수(92)와 소비지출전망지수(98)는 전월 대비 각각 10p, 8p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판단지수(58)와 향후 경기전망지수(81)는 전월 대비 각각 18p, 20p 올랐다.

취업기회전망지수(72)와 금리수준전망지수(92)는 전월 대비 각각 11p, 6p 상승했으며, 현재가계저축지수(90)와 가계저축전망지수(90)는 전월 대비 각각 4p, 8p 상승했다.

현재 가계부채지수(106)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부채전망지수(103)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